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와인컴피티션

# KOREA WINE CHALLENGE 2019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19가 지난 6월 20일 막을 내렸다. 매해 한국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의 형성으로 시장의 활력을 주도하고 있는 KWC는 15번째로 치른 올해의 행사에서도 수많은 에피소드와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았다. 글 이정은 사진 장영수

## “ KWC 2019가 전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

### #1 이탈리아 와인의 퀄리티와 대중성

총 704종이 출품되었던 이번 KWC 2019에서 이탈리아는 137종의 와인으로 출품국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5년 만에 올린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시장에서 이탈리아 와인의 성장과 변화는 KWC를 통해서 가장 실감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KWC에서 이탈리아 와인은 단순히 숫자로만 시선을 끈 것은 아니다. KWC 심사위원들과 관계자들이 눈여겨 본 것은 바로 출품 와인의 다채로움이었다.

여기에 퀄리티까지 장착을 하였으니 이번 KWC 2019의 수상와인리스트에 이탈리아 와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을 수밖에 없어진다. 그동안 북부 지역의 와인들에 집중된 출품이 이어졌다면 중부의 마르케, 아브루초, 에밀리아 로마냐가 좀 더 탄탄하고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남부의 캄파니아, 발리아, 바실리카타, 그리고 시칠리아의 호전은 꼭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여기에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 또한 큰 몫을 하고 있으니 이런 호사로운 이탈리아 와인리스트는 KWC 2019가 유일할 것 같다.

### #2 흥미로운 와인산지로 떠오른 포르투갈

《Wine Review》는 그동안 포르투갈의 와인 산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기재를 해왔었다. 단순히 자료를 찾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산지를 찾아 얻은 취재의 결과였다. 몇 년에 걸친 포르투갈 와인에 대한 《Wine Review》의 외사랑은 올해 그 결실을 화려하게 맺었다. KWC의 최고의 영예인 트로피 레드, 트로피 화이트 모두를 포르투갈 알렌테주와 와이너리인 몬드 다 라바스케이아에서 가져갔기 때문이다. 사실 몬드 다 라바스케이아 와이너리는 그동안 꾸준히 KWC에 출품을 하였고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둔 곳이었다.

특히 수상 후 와인애호가들이 참석하는 KWC 수상 와인시음회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었다. 이번 KWC 2019에서는 포르투갈의 알렌테주 이외에도 세투발, 리스보아 등지의 와인이 소개되었다. 와이너리가 직접 출품한 곳이 대부분이지만 포르투갈 와인을 해외에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협회의 노크가 있어 흥미롭다. 이렇듯 포르투갈은 개성 있는 와인산지, 토착품종, 와이너리들의 새로운 시도 등으로 자국 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 #3 KWC 2019를 빛낸 주인공, 와이너리 & 와인수입사

KWC가 15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매해 꾸준히 KWC에 참가해준 해외 와이너리들과 국내 와인수입사들의 참여에 제일 큰 의미를 둔다. 매해 KWC는 해외 및 국내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으며 와인 컴피티션을 치르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의 변화로도 난감한 상황에 빠지곤 했다. 이런 다사다난했던 시간 속에 KWC를 지켜온 해외 와이너리들과 국내 와인수입사들은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늘 출품을 해서 이름도 정겨운 해외 와이너리들은 와인의 퀄리티와 브랜드의 가치로 KWC의 입지를 높여주고 있다. 또 국내 와인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 와인수입사나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와인수입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KWC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다시 한 번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4 미지의 산지,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

KWC 2019에서도 미지의 산지,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15년이란 시간이 해외 와인시장에 KWC의 위치를 확고하게 심어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그간 끊임 없이 KWC를 노크한 미수입 와이너리들의 일부가 KWC를 후견인으로 안전하게 한국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사례들도 매년 미수입 와이너리들이 KWC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미지의 산지라고 여기는 지역에서의 참가는 몇 배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온다. 따지고 보면 올해 3관왕의 영예를 안은 포르투갈의 와인들도 《Wine Review》에 처음 소개될 때는 미지의 산지였다.

이외에도 몰도바, 모나코, 조지아, 루마니아의 와인들은 아직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산지이기도 하나 이미 국내 수입사를 통해 소개되는 곳도 있을 만큼 적극적인 해외 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와인생산 국가들이다. 또한 수상와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곳이 대부분이라 아직 미수입인 와이너리들에게는 이번 KWC를 통해 한국 시장의 진출이 수월해 질 것이라 예상된다.